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원께 드리는 글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대학 소비조합은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학생식당, 매점, 공감 커피숍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소비자 물가 및 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적자가 7억 6천만원이며, 앞으로 회계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8월 완공되는 BTL 기숙사의 편의점 자체 운영 등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확실히 됩니다.

이러한 경영 손실은 구조적 특성에 기인되어 해마다 지속될 것이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벌충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직영을 계속할 것인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외부 전문업체의 경우 현재 여러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비용이 들지 않고, 동일가격의 단체식과 20여종의 다양한 선택식이 함께 제공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 대학에 적합한 소비조합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 이사장 박종률